

제3국행 선택한 한 '전쟁포로' 이야기

개작 거듭한 장편소설 「광장」

최인훈 · 소설가

「廣場」(1961. 2. 正向社 서울)은 그 전해(’60)「새벽」잡지에 실린 작품을 증보해서 펴낸 필자의 첫 장편소설이자 첫번째 책이다. 1959년 10월에 등단 이후 중편 1 단편 3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 책에는 「廣場」만 실려 있다. 남북전쟁이 휴전된 후에 포로교환 때 제3국행을 선택한 포로의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는 인물모델은 없고, 특별한 취제도 한 바 없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그 의미를 생각하는 형식으로 구상되었다. 집필기간은 '60년 여름전철 3개월 정도이며, 집필장소는 거의 대전이다. 당시 육군에 복무하고 있던 필자는 그곳에 출장중이었다. 작년에 당시의 중립국행 포로중 한분과 잡지에서 대담할 기회가 있었고 그 분의 회고록도 읽어 보았고, 그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TV에서 보도된 적이 있어 흥미있게 본 적이 있지만, 작품이 집필되던 당시 필자의 머리에 있던 주인공은 전혀 가공의 인물이었다. 이 작품의 착상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4·19 다음이었음에는 틀림없고 집필기간으로 보아 착상되자 금방 집필되었음은 분명하다. 4·19후의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 터져나온 통일논의, 전쟁후 10년 동안 경직되었던 지적논의의 해방—10년을 격해서 부활된 듯한, 45년~50년 사이의 기간을 방불케 하는 정치적 참여의 분위기 등이 이 작품의 세계를 착상하게 된 객관적 조건이었다고 짐작한다. 한 나라의 정치적 운명이라는 것을 그 나라의 국민이면 아무나 어떤 심도로운 논의할 수 있고 행동에 의해 영향을 가할 수 있다고 활달하게 믿고 행동하는 분위기 말이다. 충분히 토론

되고 충분히 중지를 모으지 못한 채 기정사실이 되고 만 남북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한 위기의식이 분출되는 시기였다. 현실은 역사적 정통성의 입장에서 멀어 보였고, 보다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현실화되지 못한 정치적 설계들은 아직 용암의 형태로 뜨겁게 살아 있었다. 일본군의 점령에서 벗어난 지 불과 15년(!)밖에 안되었던 것이다. 충분히 전개되지 못한 정치적 에너지들이 정당한 자리를 요구하면서 운동하는 시기였다. 제목으로서의 「광장」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런 운동의 공간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 작품을 대표하고 있다. 중립국을 택한 포로들의 행동은 이 정치적 광장의 역학관계를 분석하는 극적인 촉매로서 당시 필자의 머리에 떠오른 모양이다. 중립국 선택자들의 난립선으로서의 내용은 이 소설에서 본질적인 의미는 없다. 상황의 의미를 조망하는 광원으로서 활용되었을 뿐이다. 이와 비슷한 선택을 강요받아 곤혹했고 좌절했던 슬한 사람들의 슬한 경우에 대한 상징으로서 필자에 의해 선택된 것이었다. 책이 나온 지 석달후에 5·16쿠데타가 일어났다. 5·16 몇달 후에 필자는 「구운몽」이라는 중편소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변과 시가전이 벌어진 도에서 그 의미를 모든 채 주인공이 방황하고 있는 환상소설이다. 5·16의 충격을 문학화한 소설인데 그 형식은 「광장」의 직접적인 사실성에 비하면 갑자기 신화시대에 돌아간 느낌을 준다. 4·19직전에 쓴 「가면고」라는 작품은 역시 환상적 형식으로 인간의 인격의 통합성이란 어떤 것인가, 통합된 인격이라는 것은 '실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 작

품이다. 「가면고」 「광장」 「구운몽」, 이렇게 세 작품을 놓고 보면 거기에는 필자가 이후에 쓴 모든 글의 주제가 다 나와 있는 것도 그렇거니와, 몇달 간격으로 발표된 이 작품들의 표현방식의 숨바꼭질에 대해서 그후 두고두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장」은 이후 여러번 필자에 의한 개작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집판을 낼 때 손댄 데가 가장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만 최초의 골격은 여전히 지니고 있다.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평가에 관해 말한다면 이 작품속에서 주인공에 의해 관찰된 바는 대체로 그동안의 역사의 진행이라는 시험기간을 견딜 만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실들은 더 밝혀지고, 논리는 더 정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속에서 살았던 구체적 개인을 시점으로 전개되는 「소설」이라는 기술방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설의 주인공의 직관은 그리 틀리지 않은 것 같으며, 자기 성격의 편차를 통해서 자기 시대를 증언할 수 있는 역할이란 것도 소설의 주인공의 기능임에는 틀림없다. 정해진 「시대」란 것이 이미 있고 개인들은 그 「시대」를 「선택」하는 여지만 주어졌다는—우리가 무의식에서 전제하고 있을 법한 통념도 미상불 절대적인 것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대」라는 것도 「누군」가, 혹은 「누구들」 인가가 선택한 현상이며, 그 「누군」나 「누구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는 반드시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필자는 그간의 세월속에서 차츰 더 강하게 받아왔다.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을 놓고 절대한 어떤 것을 전제하고 싶어했고, 종족적 이기심

을 궁극의 가치로 삼고 싶어하기도 하며, 마치 막으로 과학의 옷을 입은 신념을 절대적 자리에 모셔놓으려고 하기도 한다. 동물처럼 본능에서 태어나서 본능속에 살다가 본능속에서 죽는 존재에서 이탈한 인간에게는 본능처럼 명확한 종교나, 종족동질감이나, 판단력은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이 속한 수준에 고유한 「조건」부의 주장이며 행동이다. 문명사회에서의 인간행동은 「오류」를 본질적으로 전제하면서 그 「오류」에 대한 「예방」과 「교정, 보상」의 구조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마 이런 「약속」이 「문명」이라는 현상의 형식적 실체일 것이다. 「광장」의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에는 「문명」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 자신에게 그만한 신념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랬더라면 그는 덜 괴로웠을 것이고 좀더 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다지 강하지 못해도, 그다지 슬기롭지 못해도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을 그는 하지 못하였다. 이 소설의 주인공도 경험을 통해 그런 깨달음의 가까이까지 가고 있지만 끝내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작품끝에서 「꿈」에 압도당하고 만다. 「소설」의 끝장면이 가나 한 것처럼,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필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주인공은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가족상봉과 영생을 환각속에서 성취했던 것이다. 나는 이 환각에 관대하고 싶고, 인간에게 소중한 것으로 옹호하고 싶다.

기이와 너의
도서관

738-7840 / FAX 737-0872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137의 1

生命의 신비는 깊습니다. 삶과 삶이 만나는 마당은 넓습니다.

창세기의 비밀


성서를 여는 열쇠인 상징을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풀이한 책 / 정창영 역음

잃어버린 하나님 찾기

사랑을 통해 현대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현대인의 복음서 / 버지니아 폴렌코트 지음 / 박성진 옮김

그사람, 어느 길로 가더냐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새로운 형태의 설교를 모은 책 / 장일상 지음



동양정신과 서양정신의 결혼

수용성과 직관으로 대표되는 동양정신과 능동성과 이성으로 대표되는 서양정신의 결혼

정 베그리프츠 지음 장 영 옮김

내면의 불꽃

불교와 기독교를 내적인 차원에서 탐구한 책 / 윌리엄 존스톤 지음 / 정창영 옮김

잠든 하나님 깨우기

내면에 깃들어 있는 神性を 깨워내기 위한 명상법을 기독교의 입장에서 소개하여 주고있는 책 / 요엘 골드스미스 지음 / 나중근 옮김

미꾸라지 龍되는 게 역사 아니더냐

동양적인 시각에서 기독교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동양을 재해석한 책 / 방인근 지음